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클드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8년 8월 26일 (제965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 컬럼

경험이 자산이다

어느 대기업의 CEO가 신입사원 채용에 내민 미션은 이것이다. 각자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지정한 산 정상까지 올라오라는 것이었다.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좋다는 조항이 첨부되어 있었다. 이 산은 소문난 악산이다.

마침내 CEO가 지시한 시간에 응시자 모두가 정상에 모였다. CEO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방법으로 올라왔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낙하산을 타고 내렸다는 부류도 있었고, 헬기를 타고 왔다는 부류와 자일을 이용했다는 부류도 있었다. 그런가하면 그저 배낭을 메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올라온 자들도 있었다.

드디어 최종 합격자가 발표되었다. 합격의 영광을 얻은 사람은 다름 아닌 정상까지 걸어서 올라온 자들이었다. 그렇다면 이 CEO의 합격기준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경험이었다. 그들은 걸으면서 많이 보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접하면서 그에 대한 답을 찾으며 왔을 것이란 판단에 서였다.

세상의 온갖 고난을 다 겪어 세상일에 경험이 많은 사람을 ‘산전수전(山戰水戰) 다 겪은 사람’이라고 표현한다. 그들의 공통점은 세상에 어떤 일을 당해도 담대하고 자신만만하다는 것이다. 경험으로 인한 노하우가 많기 때문이다.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빌4:11~12)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산전수전 다 겪었다’이다. 그 결과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4:13)이다. 사도 바울의 말에 나는 백 번 동감한다. 나 역시 산전수전 겪어 수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험을 능가할 지식은 없다. 가장 훌륭한 스승은 경험이다. 경험은 어쩌면 비싼 수업료일 수 있으나 그것이야말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자산이다. 실패와 고난, 다 경험이다. 그것은 모든 일에 확신을 갖게 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

듣기를 싫어하는데 어쩌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함은 인생 범사에 선택권이 인간 자신에게 있음을 뜻한다. 예수를 믿고 안 믿는 것도, 주일에 교회를 가고 안 가는 것도, 기도를 하고 안 하는 것도, 말씀을 묵상하고 안 하는 것도, 전도를 하고 안 하는 것도 모두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다. 신앙적인 선택뿐 아니라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밤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행하는 모든 일에 항상 우리는 선택하고 또 선택한다. 물론 누군가의 지시나 명령에 따라 수동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 조언을 듣고 선택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최종 선택하는 주체는 나 자신이다. 때로 그 선택에 목숨이 걸려있는 일이라도 그러하다.

선택할 자유를 주신만큼, 그 선택한 결과에 대해 책임도 져야한다는 사실이다. 목사님은 지난 수요일예배 설교를 통하여 성령의 탄식에 가까운 안타까움을 토로 하셨다.

“내가 아무리 소리치고 몸을 불살라가며 불을 토하듯 가르치고 또 가르쳐도 듣기 싫다는데 넌들 어쩌랴!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자 아무리 얘기해도 공부시간엔 딴청피우다 나머지공부하러 하고, 그나마 나머지공부라도 제대로 하면 좋으련만 결국엔 듣지 않고 제 갈 길로 가다가 실컷 당하고 나서야 눈물 콧물 흘리며 찾아와 살려달라니 때는 늦으리, 넌들 어쩌랴!

라는 것이다. 작금에 뉴스를 통해 보듯이 최고 권력자였던, 각계 지도자였던 죄를 지으니 포승에 묶여 이리저리 끌려 다니지 않던가? 제 아무리 난다 긴다 해도 법을 떠나면 다 소용없는 일이다. 듣기를 싫어하고 제 갈 길로 가는 자들의 결국에 대해 사도 바울도 경고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들 마음의 정욕대로 내어버려두신다는 것이다. 그 정욕에 따라 온갖 죄를 저지르도록 내버려둔다는 것이다. 오죽하면 요한계시록에도 경고하셨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



전하는 자의 기쁨은 듣는 자가 배운 대로 실천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신30:19~20).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신11:26~28). 하나님의 뜻은 아주 명확하다. 우리에게

‘선악과 따먹지 마라’ 해도 듣지 않고 따먹는 데야 하나님도 어쩌랴! ‘죄짓지 마라, 죄악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끊어버려야 한다’고 아무리 외쳐도 듣기 싫어하는 데야 어쩌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듣고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시기에 주의 종들을 세워 외치고 또 외쳐대시지만, 오늘 본문 말씀처럼 파수꾼을 세워 나팔소리를 들으라 해도 듣지 않겠단다. 선한 길을 알려줘도 그리로 가지 않겠단다. 그러니 하나님도 어쩌실 수 없는 것이다. 재앙을 당하고 나서야 원망, 불평을 쏟아내지만, 하나님 말씀하신다. ‘네 생각의 결과다,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법을 버렸으니 그 당연한 보응이

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각자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것이다. 그러니 제발 듣는 대로 깨닫고 돌이켜 재앙에 걸리지 말고, 사는 길로, 복된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 비록 그 길이 좁은 길일지라도 그게 사는 길이요, 영생복락의 길이다. 생사화복이 네 앞에 있고 선택은 바로 네가 하는 것이다. 인생은 만드는 것이요, 행복도 만드는 것이다. 의지의 주인은 너 자신이니 네 생각이 네 의지를 다스리도록 하라.” 듣고 깨닫는 자가 복되다.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능력이다. 파수꾼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고 죄악에서 돌아서라. 그게 사는 길이다. 복된 길이다. **한은택 목사**

이초석 목사 광주집회

일시: 9월 7(금), 8(토) 저녁 8시
장소: 김대중컨벤션센터 문의: 062.262.82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고전10:1~12)



사람과 물건, 질이 좋아야 인기 있다

삼성은 명실 공히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삼성이 지금처럼 세계적인 기업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견희 회장은 취임 후 제2의 창업을 선언했지만,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이 회장이 해외에 나가 삼성제품을 살펴 보았더니 삼성제품을 진열한 매장도 많지 않았을 뿐더러, 있다고 해도 매장 구석에 먼지가 쌓인 채로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안 찾는다는 겁니다. 이 회장은 고민과 번민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993년 6월 7일, 이견희 삼성 회장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삼성의 주요 계열사 임원들을 모아놓고 '신 경영선언'을 하게 됩니다. 수백 명의 계열사 주요 임직원들에게 그는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야 한다.'며 위기의식과 변화를 강조했고, 이때부터 삼성은 뼈를 깎는 개혁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불량은 암이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노력하고 세계 최고의 제품을 분석해가며 질을 높이는데 주력했습니다. 1995년 경북 구미공장에서 품질 불량인 휴대폰 수만 대를 직원들이 직접 불태운 일화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에 노력을 거듭한 결과 오늘날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좋은 사람보다 분명한 사람이 되라

여러분, 고객은 절대 품질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좋은 물건이 나오면 뒤도 안돌아보고 등을 돌리는 게 고객입니다. 누가 내 돈 주고 물건 사면서 기업사정을 봐주겠습니까? '언젠가 성장하겠지.' 하며 기다려주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고로 품질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고객을 원망이나 하고 있다면 그는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해외에 나가보면 예전에 소니(SONY)가 광고하던 자리를 삼성이나 LG가 대신하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품질에서 이겼기 때문입니다. 어디 물건뿐입니까? 사람도 질이 좋아야 합니다. 대통령도, 기업주도, 학자도, 목사도 질이 좋아야 합니다. 질이 안 좋으면 폐기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등을 돌릴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근자에 실제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는 실력입니다. 부단히 자기 자신을 개발해야 합니다. 세계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는 독특하고 창조적인 것으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은 세상에 유일한 상품입니다. 처음부터 충분히 경쟁력 있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빛을 발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자기개발을 늦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장하는 기업의 연구소를 한 번 살펴보십시오. 늘

불야성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부단히 연구에 박차를 가해 남들보다 경쟁력이 뛰어난 고품질, 고품격의 작품을 내어놓기 위함입니다. 남들과 같아서는 경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자신만의 독창적인 것을 개발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중심교단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쫓으며 열정적인 찬양과 기도로 세계 속에 그 독창성을 인정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우리를 부르고,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현재성을 나타내는 교단이 오늘날 얼마나 됩니까! 이는 우리 교단의 자랑이며 컬러입니다.



총회장 이초석 목사

수 있다. 10년 된 산삼도 돈만 주면 누구나 산다. 그러나 100년 된 산삼은 사람이 산삼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산삼이 사람을 고른다.' 그렇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이나 지식을 가진 자는 기업이 그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그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기업과 학교를 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게으름을 버리고 부지런히 노력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책을 읽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부지런히 많은 것을 경험하여 누구도 무시하지 못할 인물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인격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성경에도 덕에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식이 덕을 앞질러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가졌다고 해도, 뛰어난 기술을 지녔더라도 덕을 겸비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상누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격의 질 때문에 추락하는 사람들을 근래에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고로 잘 익은 벼는 고개를 숙

이는 법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는 인격의 암적 요소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이 그것입니다. 또한 거짓도 이에 포함됩니다. 이런 것들을 잘라내야 인격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즉 성령의 열매로 나를 다스려 인격의 진·선·미가 이뤄지면 모든 사람들의 존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골 3:10)"

오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敬虔)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벧후 1:4~7).

셋째, 신앙의 질을 높여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이는 분명한 신앙, 확실한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고객이 품질이 좋은 물건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구매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신앙의 질이 좋은 자를 택하시라 그와 일하시고, 그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엘리야를 쓰셨는가 하면, 분명한 신앙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곧 850대 1의 정면대결을 펼치기 전,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좃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좃을찌니라"(왕상 18:21). 또한 여호수아를 쓰신 것도 같은 이유에 서입니다. 여호수아는 유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이

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수24:14~15).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 없다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죽음 앞에서도 분명한 신앙을 보여 만인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신앙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올곧은 신앙이 되어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저는 '불신자의 사후의 영이 귀신'이라고 주장하다 기성교계에서 제명되었습니다. 그 말만 접었으면 충분히 다른 교단의 목회자들처럼 편안히 목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한 바를 어떤 이론 앞에 팔아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 없는 사막이요, 눈 덮인 산야를 걸었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저를 들어 세계 70여 개국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늘 신앙이 제자리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있는 자들입니다. 신앙의 회색분자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고도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계3:15~16). 여러분, 모든 일에 좋은 사람보다 분명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신앙은 더욱 그래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질을 높이는 것이요, 신앙의 질이 높은 자를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합시다. 실력을 높이고, 인격의 질을 높이고, 신앙의 질을 높여 명품인생으로 사람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이 됩시다. 할렐루야!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하나님의 계획은 더디지 않다

인간은 수명이 있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산다. 하나님의 경륜도 인간의 시간을 기준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허황되게 느껴지고 소망에 대한 확신이 흔들려 불신앙으로 전락할 위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나 하늘에는 시간이 없고 이 땅에서 진행 중인 하나님의 경륜도 인간의 시간과는 기준이 다르다. 창세전에 계획된 예수의 일은 고작 이천년 전에 성취되었다. 이천년 하면 인간의 시간으로는 굉장히 긴 것같이 느껴지지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짧은 시간이다. 인간에게는 길고 복잡한 과정일지라도 하나님께는 그 모든 것이 하루와 같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시간관념을 초월한다. 그러므로 인간의 짧은 머리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하루살이는 하루에 몇 천 마리씩 새끼를 낳는다. 그런 하루살이가 이백팔십 일만에 자손을 하나 낳는 인간에게 ‘그렇게 더디 낳아 언제 인종이 퍼지느냐’고 할 수 있다. 이는 그들이 상상할 수 없고, 이해될 수도 없는 일이다.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사람이 기다리다 지쳐 죽어 버리고, 아들이 지쳐 죽어 버리고, 증손자가 또 그렇게 해서 몇 십 대가 내려가도 끝이 없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절망하고 있다. 이것은 사람이 하루살이 같은 짧은 인생들이기 때문이다. 하나님도 빨리 진행하시는 것인데 인간이 원래 수명이 짧기 때문에 그 개념이 달라서 하나님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인간이 아무리 더디게 느껴져도 하나님의 경륜으로는 긴 것이 아니며, 또한 인간이 너무 급하다고 생각해도 주님의 뜻은 한 치의 오차도 없으시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히10:36~38).

마귀는 인내가 없는 자들을 얼마든지 자기 밥으로 만들어버린다. 인내력이 없는 자들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해서 넘어지게 만들려고 한다. 인내가 없으면 믿음이 변해 버린다. 그러므로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자가 시험을 이기는 자이다. 예수는 성령에 이끌렸기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도 넘어지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승리하신 것이다. 먹고 싶은 것을 참듯 육신의 욕망이 와도 참고 나아가는 인내가 믿음을 승리로 이끌어 준다.

이제 남아있는 일은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하신 일이 성취되고,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자기를 믿는 자들을 데리러 오시는 일만 남아있다. 우리는 오늘밤일지 내일일지 모르지만 오시면 금방 올라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을 따라’(엡1:9)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신기류 목사

자신만의 스토리가 있는 삶

영토 내에 국민보다 관광객의 숫자가 더 많은 나라가 있다.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에는 한 해에도 수천 만 명의 관광객들이 찾아온다고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성경의 스토리(story)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성경에 기록된 스토리의 주 무대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찾아 그곳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님의 흔적을 느끼고 싶어 하기 때문이 아닐까?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물품이 신제품에 비해 가격이 낮기 마련이다. 그러나 중고물품임에도 불구하고 처음 구매했던 제품의 가격보다 수 만 배 높은 가격의 몸값이 매겨지는 경우도 있다. 미국 역대 대통령들이 사용했던 집기류나 일상 도구들, 또는 유명연예인들이 사용했던 의류나 생활필수품들이 그 예다. 심지어 유명 야구선수에 의해 날려진 홈런 볼은 상상을 초월하는 프리미엄이 붙어서 판매된다. 새것보다 더 큰 가치가 부여된 중고물품들은 가치산출의 방식을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 가치는 스토리에서 나온다.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스토리, 역사를 다시금 되짚어볼 수 있도

록 만들어주는 스토리, 그 스토리가 담겨질 때 제품의 가치는 더 크게 부여된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다. 사는 것 자체로만 본다면 무슨 가치를 말할 수 있겠는가? 끝을 알 수 없는 거대한 우주적 개념 속에 한 사람이라는 존재는 먼지 같은 존재에 불과할 것이며,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십억명 중의 한 사람으로 인생을 바라본다면 그 가치 또한 미미할 것이다.

그러나 인생 속에 어떤 스토리가 담긴다면 인생의 의미는 확연히 달라질 것이다. 가치가 부여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한 사람의 삶속에서 발견되는 독특한 스토리, 그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는 순간부터 그 가치는 상승한다.

우리의 가치와 삶을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우리 믿음의 선친들처럼. 하루하루 역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이야기에 기인 히스토리(His Story)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는 생존을 위한 시간이 아닌 스토리를 만들기 위한 재료이다. 즉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시간임을 결코 잊지 말자.

이정금 전도사
jungkm@nate.com

행동하는 신앙인

연평균 30%에 가까운 투자 수익률을 올리며 세계 최고의 거부의 자리에 있는 워런 버핏은 매년 6월에 3시간의 점심식사 경매를 진행해왔는데, 올해는 35억에 낙찰되었다고 한다.

워런 버핏은 3시간의 식사 중에 성공의 비결과 물음에 답해준다고 한다. 그러나 실상을 듣고 나면 ‘겨우 이거야? 나도 이 정도는 말할 수 있겠다. 실망스럽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는 못하고 있는 것이다. 놀라운 것은 35억이나 들어서 얻은 노하우가 얼마 지나지 않아 언론이나 서적을 통해 우리에게도 알려진다는 것이다. 35억짜리 정보를 거저 얻는 것이다. 그런데도 성공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마음으로는 모두가 성공을 원하고 있지만 실제 삶의 수고는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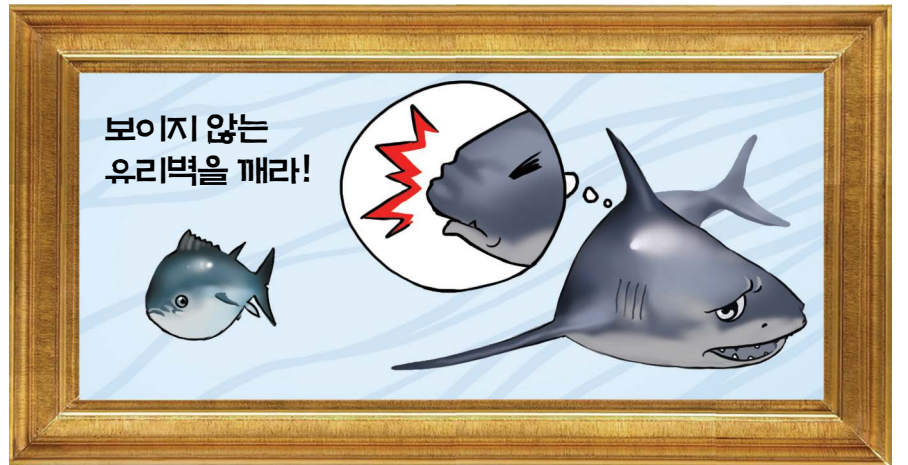
성경은 수천 년에 걸쳐 믿음의 역사를 기록하며 후손들에게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라. 많은 믿음의 위인들을 기록하며 우리에게 행함을 통해 동일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라고 권면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열매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씨앗을 주시는 분임을 잊지 말자. 그 씨앗이 열매 맺기까지 키우는 것은 내 몫이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 믿음을 성장시키고 행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다. 만남 역시 하나님이 주시지만 관계는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목사님은 말씀하신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약2:26).

김상욱 목사

ksw9669@hanmail.net



기도는 생명선이다

“119, 119에 어서 신고해.”

“인공호흡하고..., 사물함 열고 신분증 확인해.”

순식간에 일어난 사건이었다.

중고등부 교사들은 3, 6, 9, 12월, 1년에 네 차례씩 특별새벽기도를 해왔다. 1년 4차례 새벽기도를 시작했던 이유는 매일 기도의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였다.

2018년 3월 새벽기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고 참석률이 높았다. 하루는 기도처 멤버들과 사우나라도 갈 요량으로 심방을 끝내고 기도처에 도착하니 저녁 11시가 다되었다. 매일 기도처에서 간단히 씻다가 사우나를 가자고 하니 모두가 신이 났다.

한 교사가 갑자기 소리를 친 것은 바로 그때였다. 우리 일행이 목욕탕에 들어갈 때만 해도 분명 열탕에서 양팔을 바깥으로 걸치고 휴식을 취하시던 어르신 한 분이 그대로 물속에 잠긴 채 올라오지 않고 있었던 것이었다. 우리 일행은 너무 놀랐지만 차분하고 신속하게 대응했다. 인공호흡을 하고 있으니 순식간에 응급대원들이 각종 의료장비를 들고 욕탕으로 뛰어들어 왔다. 심장충격기가

지 동원했지만 조금의 미동도 없었다. 대원들은 들것을 가지고 와서 어르신을 곧바로 후송했다. 응급대원들이 다녀간 자리를 정리한 뒤 찜질복을 입고 함께 모였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흔치 않은 일을 보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야. 물론 어르신이 일어나시면 좋겠지만 아마 힘드실 것 같아... 왜냐하면 물에 잠긴 채로 호흡을 5분 정도 이상 못하셨잖아. 우리도 똑같다. 영적인 호흡이 끊기면 우리 영이 살 수가 없어.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하는데 호흡을 못하면 살 수가 없잖아. 우리 평생 이 순간을 기억하고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자.”

그 어르신은 끝내 일어나지 못하셨다고 한다.

목사님께서 지난 30년간 가장 많이 외치신 말씀, “기도는 생명선이다.” 그것은 비유가 아니라 실재이다.

기도를 잃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죽은 자와 같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골4:2).

이현승 전도사

coollee0817@naver.com

십일조의 비밀

어린 시절, 어머니께서는 믿음으로 우리 세 남매를 훈육하셨습니다. 제가 8살이 되던 해 어머니께서는 십일조에 대해 가르쳐주셨고, 용돈을 주실 때마다 항상 10분의 1을 먼저 구별하도록 하셨습니다. “십일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네. 이것을 평생 지키도록 하렴.” 어머니의 귀한 가르침으로 십일조를 내 것이 아닌 하나님 것으로 먼저 구분해놓으니 큰 물질이 들어와도 십일조를 드리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른 교회에 출석할 때에는 십일조에 대해 자세히 배우지 못했는데, 총회장 목사님을 뵈고 나서 십일조의 비밀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철야예배 때,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지?’ 생각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는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을 주시면서, 성경에 단 한 구절,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말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태어나서 들

어본 말씀 중 가장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가지고 있던 10만원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시험해보았고,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100만원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이후로 십일조를 드릴 때면 하나님께서 또 내게 어떤 축복으로 응답해주실 지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신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또한 그 기대에 대하여 차고 넘치게 채워주셨습니다. 2011년 4월,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부모님께 받은 예물과 결혼식 축의금에서 십일조를 드렸고,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때 심은 십일조로 인해 결혼 후 7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잉꼬부부로 지내며 굳건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머니께서 처음 심어준 십일조 씨앗이 장성하여, 총회장 목사님의 가르침으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이제야 새삼 깨닫습니다. 결혼생활은 순탄하고, 가정은 화목하며, 사업은 번창하여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마다 감사의 눈물로 아낌없이 드렸더니 100배를 뛰어넘어 1,000배, 10,000배의 축복으로 응

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십일조는 신명기 14장 22절에 ‘마땅히’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마땅한 십일조가 황충을 금하여 우리의 토지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우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겁니다. 우리의 땅이 아름다워져 열방이, 세계가 우리를 복되다 할 것이라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콜게이트라는 유명한 치약회사의 창립자 윌리엄 콜게이트는 치약, 칫솔, 화장품 등으로 크게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그는 그의 성공비결이 십일조 생활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항상 수입 중 10분의 1을 구별하여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두고 나머지 10분의 9를 가지고 사업에 투자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십일조가 자신의 복의 근원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콜게이트의 고백처럼 저도 에데니끄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켜 십일조가 제 복의 근원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오길 기대합니다.

김은유
ceo@edenique.co.kr

길이 있지만 오직 한길만이 안전한 길입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요14:6).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동반자가 되시고, 이정표가 되어 주시며, 완벽한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셔서 영생복락의 천국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여주실 것입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 나도 건강할 수 있다 ::

일사병, 열사병 주의하세요!

올여름은 100여년만의 폭염으로 일사병,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병원 응급실을 찾은 사람이 3,500명이 넘었다. 8일 질병관리본부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부터 8월 6일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총 3,536명이고 이 가운데 43명이 숨졌다. 환자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많았다. 전체 환자 가운데 65세 이상은 1,156명으로 32.7%를 차지했다. 성별로 보면 남자 2,566명, 여자 970명으로 남자가 훨씬 많았다. 환자가 많이 발생한 장소는 작업장, 논밭, 길가, 집, 운동장 등이었다. 온열질환이란 극심한 고온에 노출되어 신체가 제대로 열을 식히지 못할 때 발생한다. 어지럼증, 구토, 발열, 신경 및 정신 이상 등의 증상을 동반하며 일사병, 열사병, 열 경련, 열 탈진, 열 부종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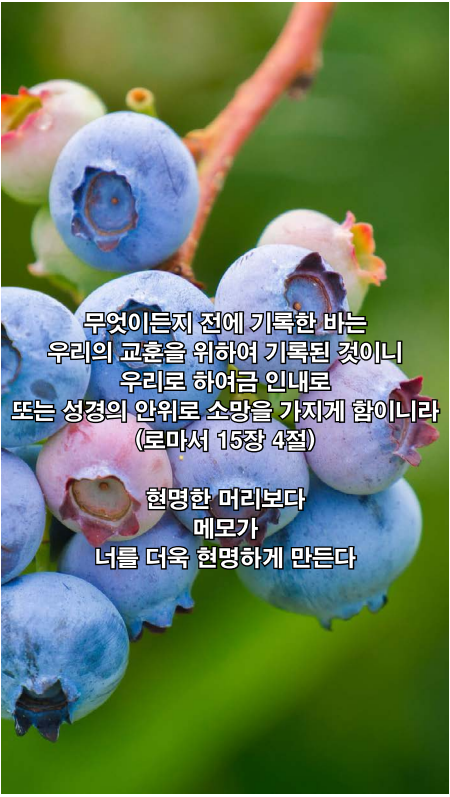
일사병은 무더위에 장시간 노출되면서 신체 온도가 37~40도까지 상승하는 질환으로 체액이나 땀으로 전해질, 영양분의 손실로 인한 탈수 증상이다.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입고 있는 옷의 단추 등을 풀어 혈렁하게 해주며 물이나 이온음료를 마시게 하면 대개 회복된다. 열사병은 고온의 밀폐된 공간에 장시간 머물 경우, 우리 몸의 체온조절중추 기능의 한계를 넘어서 신체 온도가 40도 이상으로 상승한 경우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은 뇌세포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정신 혼란, 발작, 의식 상실 등의 증상이 나타나므로 모든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체온을 낮추어야 하며 119에 연락하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열 경련은 고온에 지속해서 노출되면서 저나트륨증으로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는 질환으로 어깨, 팔, 다리, 복부, 손가

락의 근육에 경련이 생긴다. 열 부종은 얼굴과 손, 발, 다리에 별갈게 부어오르며 부종이 생긴다. 온열질환의 예방을 위해서는 정오에서 오후 5시, 가장 더운 시간대의 야외활동을 최소화 하며 외출할 때 양산, 모자 등으로 햇볕을 차단하고 혈렁하고 가벼운 옷을 입도록 한다. 야외활동이나 작업 시에는 2시간마다 휴식을 취하며 갈증을 느끼지 않도록 규칙적으로 물, 이온음료, 과일주스 등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커튼이나 블라인더로 집 안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차단하고 시원한 물로 목욕이나 샤워로 체온을 낮춘다. 75세 이상의 어르신이나 홀로 사는 어르신, 만성질환을 가진 어르신들은 폭염에 취약하므로 더욱 건강관리에 주의하자. Dr. 조희경 집사
pearl9230@naver.com

대박을 이루는 비결

무더운 여름만 되면 생각나는 유명한 맛집이 있다. 청계산 근처에 위치한 막국수 집으로 음식 프로그램 PD로 일하던 시절 갔던 300여 곳의 음식점 중에 단연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진정한 맛집이다. 이 집에 방문하여 사장님을 관찰하고 촬영하다보니 왜 이 집에 손님이 몰려드는지 알 수 있었다. 이 맛집의 성공비법 첫 번째는 바로 친절이었다. 흠에 이미 사람들이 가득차고 밖에서는 번호표를 뽑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문정성시(門前成市)’를 이루는 상황 속에서도 모든 직원이 친절했다. 특히 사장님이 제일 친절하셨다. 밖에서 기다리는 손님들에게도 연신 양해를 구하고 자리에 착석한 손님들의 주문 순서가 바뀌지 않게 세심하게 챙기시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 깊었다. 그리고 사장님과 직원들은 그렇게 바쁜 상황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았다. 두 번째 이유는 ‘실력으로 평가된 맛’이다. 오래 맛집 촬영을 가면 사장님이나 요리사들은 이 집 맛의 핵심인 비법을 숨긴다. 그런데 이 집은 모든 음식 조리과정을 공개했다. 사장님은 땅속에 파묻혀 숙성된 동치미 국물을 두 손으로 담아주면서 “PD님, 드셔보세요! 이게 우리 집의 진국이오.”라고 하셨다.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이렇게 비법을 스스럼없이 보여주시나.’ 하며 한입을 먹는 순간 동치미 국물 맛이 너무 깊고 시원해 이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장인의 맛임을 알았다. 성공비법의 마지막은 ‘섬김의 자세’였다. 자신의 자식뿐인 방송 스태프들에게 사장님은 한 번도 반말을 하지 않으셨다. 촬영을 마치고 돌아가는 방송국 차량을 보면 서도 사장님은 90도로 인사를 하셨다. 음식 맛도 훌륭하고 손님을 왕처럼 대접하는 맛집이 있다면 어떤 손님들이 가지 않을 수 있겠나? ‘왜 내 기업은, 내 가게는, 나는 안 될까?’ 하는 의문에 답이 나오지 않았는가.

송현혜 자매
charisma0691@hanmail.net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비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압력으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로마서 15장 4절)

현명한 머리보다
메모가
너를 더욱 현명하게 만든다